우리 엄마는 외계인

주제: 자신의 존재가 사라져도 행복할 수 있을까?

기획 의도: 자식에게 슬픔을 주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부모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인물

이지후(38세, 남): 세탁소 사장, 차분하고 다정한 성격. 예인의 남편이자 한결의 아빠. 죽은 예인을 그리워함

강예인(33세, 여): 무직, 배려심이 많고 밝으며 쾌활한 성격. 불치병을 앓고 있어서 이른 나이에 죽음. 자신의 남편 지후와 한결을 매우 사랑함.

이한결(5세, 남): 무직, 호기심이 많고 밝은 성격. 아빠인 지후와 조금 서먹하다.

시놉시스

이한결(5세, 남)은 어느 날 집에 있는 가족사진을 보고 궁금증에 빠진다. 사진에는 어린 한결과 한결의 아빠 이지후(38세, 남), 그리고 이상한 외계인이 어린 한결을 안고 있다. 한결은 외계인의 존재가 궁금해졌다. 한결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외계인이 나오는 만화책과 사진도 찾아봤지만, 도무지 알아낼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한결은 아빠에게 물어보기 위해 세탁소를 찾아갔다. 바쁜 지후 옆에 앉은 한결은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외계인의 정체를 물었다. 지후는 잠시 생각하다 한결의 엄마이고 지금은 하늘에 별을 지키기 위해 우주로 잠시 갔다고 한결에게 답해줬다. 5년 전 강예인(33세, 여)은 간암 4기와 시한부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예인은 오히려 밝게 웃으며 슬퍼하는 지후를 다독여줬다. 가장 큰 문제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예인과 지후의 아들 한결이었다. 둘은 아이에게 엄마의 부재를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했다. 며칠 뒤 예인은 외계인 의상을 가지고 나타났다. 지후는 웃음을 지으며 예인과 어린 한결을 데리고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갔다. 집으로 간 한결과 지후는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외계인이 나오는 영화를 함께 본다. 지후는 한결에게 엄마가 외계인 것을 비밀로 하자고 약속한다. 지후는 영화를 보다 잠이 든 한결을 침대에 눕히고 외계인이 아닌 예인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본다.

시나리오

#S 1 한결의 방 안

한결(5세, 남)은 외계인이 나오는 만화책과 사진을 바닥에 놓고 유심히 살펴본다.

그러다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꺼내 외계인을 그려본다.

한결 (한숨을 쉬며) 흠…

한결은 자신의 가족 사진을 쳐다보고는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한결의 어깨 너머로 가족 사진이 보인다. 가족 사진에는 한결의 아빠인 지후와 어린 한결, 그리고 외계인이 있다.

지후(소리) 이한결! 나와서 밥 먹어

#S 2 거실

한결은 거실로 나와 식탁에 앉는다. 지후(38세, 남)은 밥을 들고 식탁으로 온다. 한결은 계속 스케치북애 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후 장난 그만 치고, 빨리 먹어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둘은 조용히 밥을 먹는다.

지후 아빠 일하고 올 테니까, 밥 다 먹고 놀고 있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알았지?

현관문이 닫히고 한결은 계속 밥을 먹는다. 밥을 다 먹고 외계인 탐구를 더 하던 지후는

도저히 정답을 찾지 못해 답답해한다. 그러다 한결은 아빠에게 물어보기로 마음을 먹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한다.

#S 2 세탁소 가는 길 (낮)

집 밖으로 나와 지후가 일하는 세탁소를 찾아간다. 길을 걸으며 바닥에 있는 발자국들을 유심히 살펴보고는 외계인의 것이 아닐지 장난감 카메라로 발자국들을 찍어본다.

#S 3 세탁소

지후는 한결이 문 밖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고 놀라며 문을 열어준다.

지후 한결아, 어떻게 왔어?

한결 저번에 아빠가 알려준 대로 왔어

지후 (당황하며) 어… 혼자 다니면 위험한데 전화라도 하지

한결 괜찮아 아빠 (손가락으로 세아리며) 나 이제 다섯 살이야.

지후는 한결을 안아 다림질 판에 올리고 음료수 하나를 쥐여준 뒤 다시 일을 한다.

한결은 음료수를 마시다 눈치를 보며 지후에게 가족 사진을 내민다.

한결 아빠, 이 외계인은 뭐야?

지후는 가족 사진을 지긋이 바라보다 답한다.

지후 어… 한결이 엄마야

한결 지금 어딨어?

지후 한결이 엄마는… 지금 우주에 있지?

한결 왜?

지후 우주에 있는 별들 지키러

한결 그럼 이제 못 봐?

지후 (다리미를 내려놓으며) 아니, 밤 되면 볼 수 있지. 제~일 빛나는 별에 한결이 엄마가 살고 있을 걸?

한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음료수를 마저 마신다.

#S 4 집 거실 (과거)

예인(32세, 여)은 슬퍼하고 있는 지후를 달래주고 있다

예인 (웃으며) 괜찮아, 그만 울어

울고 있는 지후 앞에 판독소견서 종이가 보인다.

종이에는 예인이 간암 4기라는 글이 적혀 있다.

시간이 지나고 조금 진정된 지후를 보고 예인이 말을 꺼낸다.

예인 그럼 우리… 한결이한테는 뭐라고 말할까?

지후 뭐 어떻게 해… 그냥 사실대로 말해줘야지

예인은 지후에게 외계인 코스튬 사진을 보여준다.

지후 이게 뭐야?

예인 (미소를 지으며) 이거 입고 가족사진 찍으면 어때? 나중에 한결이한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후 뭐? 그럼 애가 너를 외계인으로 기억할 거 아니야. 안 돼. 그래도 한결이한테는 엄마로 남아야지

예인 그래도… 엄마 죽었다고 하는 것보단 낫잖아. 응? 우리 한 번만 찍어보자

지후는 그런 예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쉰다.

S# 5 사진관

예인은 외계인 코스튬을 입은 뒤 어린 한결을 안고, 지후는 예인 옆에 선다.

사진사(소리) 정말… 그거 입고 찍으실 건가요?

주저하던 지후는 외계인을 보고 웃는 어린 한결을 보고 끝내 미소를 짓는다.

지후 네, 이대로 찍어주세요

찰~~~~~~칵?

#S 6 세탁소 안

심심한 한결은 일하고 있는 지후와 세탁소 안을 장난감 카메라로 찍어본다.

그런 한결을 본 지후는 옷을 정리하고, 문닫을 준비를 한다.

지후 이제 갈까?

한결 (고개를 끄덕이며) 응

지후 아… 그리고 한결아, 우리 엄마가 외계인인 건 비밀이야. 알았지?

지후와 한결은 웃으며 쉿 하는 제스처를 함께 취한다.

그 뒤로 예인이 입었던 외계인 코스튬이 보이고 불이 꺼진다.

#S 7 집 거실

한결과 지후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외계인이 나오는 영화를 본다.

한결 (텔레비전을 가르키며) 저게 엄마야?

지후 (아이스크림에 있는 초코를 먹여주며) 아니, 엄마 친구야

한결 그럼 저 엄마 친구는 이름이 뭐야?

지후 (고민하다가) … 베놈?

영화를 보던 한결은 잠에 든다. 지후는 한결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혀준다.

지후는 침대 옆에 조명을 킨 뒤, 가족 사진을 바라본다. 지후는 액자를 열어 가족 사진 뒤에 있는 새로운 가족 사진을 꺼내 본다. 외계인이 아닌 진짜 예인과 찍은 사진이 보인다. 지후는 액자를 다시 옆에 두고, 한결을 바라보며 웃는다.